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CNBC: 인플레이션 불구 외식 여전히 하지만 소비자들 현명하게 지출

#### [미국 금융]

- CNBC: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

#### [뉴욕/뉴저지]

- Bloomberg: 뉴저지-뉴욕 통근, 치솟는 요금에 서비스 악화까지

#### [미국 대선]

- WSJ: 주말 유세에서 바이든 측근, 사태 요구 일축

#### [에너지]

- WSJ: 테크 기업들 인공지능 위해 원자력 활용 늘린다

#### [미중 경제]

- WSJ: 미 항만청들, 백악관에 중국산 트레인 관세로 심각한 경제 리스크 우려 표명

#### [중국 경제]

- Bloomberg: 중국 부동산 시장, 6월 침체 둔화 조짐 보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아마존, AI 투자로 미래 수익 창출에 나선다
- CNBC: 테크 기업들, '국경 없는 채용'으로 인재 확보에 나서
- CNN Business: 영국 스타트업 Nyobolt, 5분 이내 충전 가능한 배터리 개발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CNBC: Inflation isn't stopping people from dining out, but consumers are getting savvy with spending**

**인플레이션 불구 외식 여전히 하지만 소비자들 현명하게 지출**

- 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외식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외식에 대해 조심스럽게 지출하고 있다.
- 전자 상거래 제공업체인 Lightspeed Commerce Inc에 따르면 미국인 대다수인 81%는 한 달이나 그 이상에 한 번 정도 외식을 하고 31%가 1주일이나 그 이상에 한 번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설사 인플레이션이 팬데믹 때 보다 크게 하락했으나 재정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는 소비자들은, 테이크아웃이나 할인 기프트 카드나 식당에서 할인하는 날에 식사하는 선택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CNBC 기사

**[미국 금융]****CNBC: 10-year Treasury yield climbs as investors look to data in week ahead****10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

- 투자자들이 지난 금요일 개인 소매 지출 물가 하락을 검토하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노동시장 관련 보고서를 기다리는 가운데 미 국채 시장은 월요일 상승하고 있다.
- 10년물 국채 금리가 10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4.441%, 2년물은 5베이시스 포인트 늘어난 4.781%를 기록 중이다.

CNBC 기사

**[뉴욕/뉴저지]****Bloomberg: New Jersey to New York City Commute Is Costlier and Worse as Fares Increase****뉴저지-뉴욕 통근, 치솟는 요금에 서비스 악화까지**

- 뉴저지 주 몽클레어에서 맨해튼까지 출퇴근하는 Dayna Nicles의 출퇴근 길이 뉴저지 트랜짓의 잦은 결항과 지연으로 인해 최근 몇 주 동안 2시간 30분이나 더 걸렸다. 그녀는 뉴욕 펜 스테이션에서 과열된 선 문제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단된 후 발이 묶인 수백 명의 통근자들과 함께 대기하면서 “매일 지연되고, 매일 결항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 미국에서 가장 분주한 철도 통로인 뉴저지 트랜짓은 자금 부족, 더운 날씨, 노후화된 인프라로 인해 잦은 서비스 문제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연과 불안정한 대중교통이 지역 주민과 기업에 손실을 입히고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 주지사Kashy Hochul 뉴욕의 혼잡 요금제를 중단하면서 대중교통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 블룸버그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첫 5개월 동안 뉴저지 트랜짓의 주요 철도 노선은 팬데믹 이전보다 최악의 정시 운행 상황을 보였으며, 철도 전체에서 취소된 열차는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 하반기에는 암트랙 인프라 문제로 인해 최소 4건의 사고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몇 시간 동안 중단되면서 수천 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

- 이런 상황에서 뉴저지 트랜짓은 월요일부터 모든 철도, 버스, 경전철 티켓의 요금을 15% 인상했다. 이에 노스저지 지역구를 대표하는 Mikie Sherrill 하원의원은 서비스가 더 안정될 때까지 요금 인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Bloomberg 기사

### [미국 대선]

#### **WSJ: Biden Allies Dismiss Calls to Quit in Frenetic Weekend Blitz** 주말 유세에서 바이든 측근, 사태 요구 일축

- 조 바이든 캠페인 측은 바이든의 문제 많았던 토론회 이후에 올해 대선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기부자, 컨설턴트, 관리들, 미디어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 바이든 보좌관들은 주말 동안에 바이든이 후보직을 제고하거나 그의 캠페인 작전을 바꾸는 극적인 조치를 하라는 제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일축했다.
- 트럼프 지지자들은 바이든 후보를 제고할 경우 혼란과 내부 논쟁만이 가열되어 민주당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WSJ 기사

### [에너지]

#### **WSJ: Tech Industry Wants to Lock Up Nuclear Power for AI** 테크 기업들 인공지능 위해 원자력 활용 늘린다

- 테크 기업들이 전력 공급을 받기 위해 이들의 핵심 타겟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에 집중하고 있다.
- 미국 원자력 발전소의 거의 3분의 1가량은 테크 기업들과 논의중인데 이를 통해 인공지능 붐 수요에 필요한 새로운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다.
- 이와 관련 미국의 가장 큰 핵 원자력을 갖고 있는 Constellation Energy는 동부의 핵 발전소를 통해 직접적으로 아마존 웹서비스에 전기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무리되고 있다. 아마존 또한 6억5천만규모로 원자력이 공급하는 데이터 센터를 구입했다.

WSJ 기사

**[미중 경제]****WSJ: US Ports Warn White House of 'Grave' Economic Risks With China Crane Tariff****미 항만청들, 백악관에 중국산 트레인 관세로 심각한 경제 리스크 우려 표명**

- 관세는 국경세로 타킷에 되는 제품에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중국산 크레인 대한 미국의 관세는 무자비해 수출과 수입, 그리고 정부와 기업, 소비자 모두가 비용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 이런 면에서 미국 항만청들은 중국산 크레인에 25%의 관세 부과를 제고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이같은 관세 부과는 1천억 3천만 달러의 예상치 못한 비용을 추가하게 되고,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쟁 업체들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 이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사우스아메리카, 텍사스, 버지니아 항만청은 중국에 대한 미 무역부의 301 조로 이뤄지는 이같은 관세 부과를 지연하거나 없애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WSJ 기사

**[중국 경제]****Bloomberg: China's Slump in Home Sales Slows After Cities Ease Policy****중국 부동산 시장, 6월 침체 둔화 조짐 보여**

- 중국 정부의 대도시 주택 시장 안정화 노력으로 6월 중국 주거용 부동산 부문의 침체가 둔화되었다.
- 중국 부동산 정보 회사의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100대 부동산 기업의 신규 주택 판매액이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한 600억 달러으로, 5월의 34% 감소에 비해 감소 폭이 줄었다. 또한, 매출은 5월보다 36% 증가했다.
-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중국 대도시 3곳은 5월 말 중앙 정부가 발표한 광범위한 부동산 지원 패키지에 따라 다운페이먼트를 인하하고 모기지 대출을 더 저렴하게 만들었다. 베이징도 지난주 이러한 조치를 취해 1선 도시 중 네 번째로 합류했다.
-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신규 주택 판매의 궤도 전환이 올해 중국 경제에 다소 안도감을 줄 수 있다고 지난주에 예상했다.

Bloomberg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Amazon, Built by Retail, Invests in Its AI Future**  
**아마존, AI 투자로 미래 수익 창출에 나선다**

- 아마존은 소매 및 물류 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로 2조 달러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수십억 달러의 자금 투자가 수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아마존은 향후 10년간 데이터 센터에 1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절약형 투자로 유명한 아마존으로서는 상당한 금액이며, 클라우드 컴퓨팅과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Amazon Web Services(AWS)는 수년간 데이터 센터를 확장해 왔으며, AI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WS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John Felton은 AI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며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WSJ 기사

**CNBC: Move over, remote jobs. CEOs say borderless talent is the future of tech work**  
**테크 기업들, '국경 없는 채용'으로 인재 확보에 나서**

- 전문가들이 기술 직군에서 '국경 없는 채용'이 주목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AI 기반 기술 인재 마켓플레이스 Andela의 CEO Jeremy Johnson은 "원격 근무는 국경 없는 근무로 가는 관문"이라며, 전 세계의 훌륭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했다.
- 기술 리더들이 혁신과 효율성에 집중하면서 국가나 시간대 구분을 뛰어넘는 기술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 Gartner의 2023 CEO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국경을 초월한 기술 인력 채용이 두 배로 증가했다.
- CBRE 글로벌 기술 인재 가이드북 2024에 따르면, 베이징과 델리 같은 도시의 기술 인재가 미국 대도시의 인재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필리핀 세부 시티, 케냐 나이로비 등의 도시도 급성장하는 기술 인재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CNBC 기사

**CNN Business: This electric car battery takes less than 5 minutes to charge**  
**영국 스타트업 Nyobolt, 5분 이내 충전 가능한 배터리 개발**

- 영국의 스타트업 Nyobolt가 전기차 배터리 충전 시간을 크게 줄이는 혁신을 이루어냈다.
-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4분 30초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되는 35kWh 리튬 이온 배터리를 개발했으며 이는 현재 테슬라 슈퍼차저 등의 고속 충전기보다 훨씬 빠른 속도이다.
- Nyobolt의 공동 설립자 겸 CEO인 Sai Shivareddy는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고 확장 가능한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으며, 이 배터리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배터리 과학자 Clare Grey와 Shivareddy가 주도한 10년간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 해당 기술은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면서도 배터리 수명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열 발생이 적어 더 안전하며 전자를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소재로 양극을 제작하여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 Nyobolt는 현재 8개 전기차 제조업체에 배터리를 판매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CNN Business 기사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